스포츠동아
sportsdonga.com
2022년 8월 10일 수요일

배우 박지환이 연이은 출연작의 흥행에 "감사하다"면서도 "결과보다 중요한 건 앞으로 하게 될 연기"라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 저스트엔터테인먼트

1000만 '범죄도시2' 이어 '한산'까지…흥행 아이콘 **박·지·환**

"잘나가는 1등 배우보다 노력하는 4등 배우가 꿈"

독보적 개성 어필…광고 계약만 8건
'텐트 밖은 유럽' 등 예능 섭외 봇물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감사하지만 점심값밖에 없던 시절 생각하며 연기나 장군 만난 것도 연기만해온 결과"

스무 살 시절 무전여행을 하다 강화 마니산에 올라 불현듯 '연기를 해야겠다'고 다짐한 뒤 연극무대에 나섰다. 짧지 않은 시간을 무명의 연극배우로 관객을 만났다. 2006년 영화 '짝패'로 스크린에 나서려 했지만 '통편집' 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회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20여 년 만에 '흥행의 아이콘'으로 우뚝 섰다.

배우 박지환(42). 감염병 확산 이후 처음으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범죄도시2'부터 최고 시청률 14.6%를 기록하며 시선을 끈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호평 속에 500만 관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영화 '한산: 용의 출현'(한산)까지, 올해의 화제작 속에 바로 그가 있다.

● "똑같은 연기? 건달 캐릭터도 계속 변화"

2017년 '범죄도시'를 통해 본격적으로 관객에 얼굴을 알린 지 5년 만에 펼쳐진 "꿈같은 일들" 앞에서 박지환은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모든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들뜨지는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서울 삼청동 카페에서 만난 그는 "성취의 세리머니보다는 다음 작품만을 생각하려 한다. 연극할 때부터 작품의 결과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 해왔다"면서 "결과에 너무 신경 쓰게 되면 오히려 이도 저도 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담담한 표정이다.

작품의 잇단 흥행과 독보적인 개성에 힘입어 광고계의 뜨거운 러브콜까지 받으며 갑자기 얻게 된 경제적 수입도 "극단적으로 경계"하고 있다. 마스크, 제약, 화장품, 식품 프랜차이즈 등 올해 촬영 및 모델 계약을 완료한 광고 브랜드만 해도 8개다. 예능프로그램 섭외도 밀려들어 최근 유해진·진선규 등과 함께 3일부터 tvN '텐트 밖은 유럽'을 선보이고 있다.

"돈에 기분을 편향시키면 안 된다"고 늘 다짐하며 통장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있다는 그는 "연극무대 시절을 떠올리며 점심값과 기름값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연기한다고 말했다. 건달 등 악역 연기로 "이미지를 소비하고 있다"는 시선 속에서도 "건달 연기 안에서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어떤 캐릭터를 연기하든 이 역할이 내게 '새로운 분기점'을 만들어줄 거라고 기대하며 연기하지 않는다. 주어진 연기에 집중할 뿐이다."

● "늘 4등인 배우가 되고 싶어"

'한산'의 나대용 장군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그렇게 "바라지 않고 연기만 해온 결과"라 믿는다. 영화의 '진짜 주인공'으로 불리는 거북선을 만든 충직한 나대용 장군은 그가 지금까지 주로 연기해왔던 캐릭터와는 180도 다르다. 출연 제안을 해온 '한산'의 연출자 김한민 감독에게 "왜구가 아니라요?"라고 되묻기까지 했을 정도다. 박지환은 "나 장군의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한 달간 그의 발자취를 되짚는 여행"을 하며 그 후손까지 만났다. "결코 허투루" 준비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1등이 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다. 늘 4등이 되고 싶다. 순위권에 들지 못했지만 그에 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 아쉬움만큼이나 더 노력하는 사람이고 싶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작년과 꼭닮은 후반기 상승세 '2021 미러클 두산' 재현하나

1 후반기 7승 5패…5위 KIA에 4.5게임차 6위 사정권
2 브랜든 와델 연착륙·곽빈의 복귀 등도 희망적 요소
3 김태형감독 7년간 후반기 성적 1위…선수들도 자신감

두산 베어스는 올 시즌 전반기를 7위(36승2무42패)로 마쳤다. 불안한 마운드와 주축타자들의 줄부상에 발목을 잡힌 까닭에 '올해는 쉽지 않다'는 분위기가 만만치 않았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연속 한국시리즈(KS)에 오른 저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반론도 나왔지만, 상위권 5개 팀의 입지가 워낙 탄탄했기에 부정적 목소리가 더 컸다.

그러나 두산은 또 한번 '미러클'을 꿈꾸고 있다. 후반기 12경기에서 7승5패(4위)를 기록하며 포스트시즌(PS) 진출 희망을 되살렸다. 9일 현재 5위 KIA 타이거즈(49승1무48패)에 4.5게임차 뒤진 6위(43승2무51패)라 아직 충분히 해볼 만하다. 더욱이 KIA와는 4차례 맞대결도 남아있다. 특히 와일드카드(WC) 결정전부터 시작해 KS까지 올랐던 지난해의 사례를 고려하면, 두산의 약진은 상위권 팀들에 꽤나 부담스러울 수 있다.

두산의 최근 행보는 지난해와 꼭 닮아있다. 지난해 96경기를 치른 시점의 성적(43승2무51패)이 지금과 똑같았다. 당시 5위였던 키움 히어로즈(51승1무49패)와 격차는 5게임, 순위는 8위였다. 올해만큼 쉽지 않은 도전이었지만 후반기 1위(35승8무26패), 최종 4위(71승8무65패)로 정규시즌을 마쳤다. 2020도쿄올림픽 휴식기와 리그 중단 여파, 연장전을 진행하지 않는 규칙 등 여러 변수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두산의 뒷심은 엄청났다.

두산을 후반기 다크호스로 꼽는 이유는 또 있다. 김태형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지난 7년간(2015~2021년) 후반기 승률이 0.603(251승15무165패)으로 압도적 1위였다. 같은 기간 승률 2위인 NC 다이노스(0.531·223승17무197패)와도 차이가 크다. 이에 따른 선수들의 자신감도 상당하다.

한 번 잡은 흐름을 좀처럼 넘겨주지 않는 끈기도 되살아났다. 후반기 선취점을 올린 7경기에서 5승2패로 선전했다. 전반기(24승19패·승률 0.558)와는 판이하다. 그뿐 아니라 새 외국인투수 브랜든 와델의 연착륙, 5년차 우완투수 곽빈의 복귀, 4년차 내야수 송승환의 활약 등 희망 요소도 적지 않다. 두산의 후반기 행보가 관심을 모으는 이유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